

#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윤여탁\*\*

## I. 머리말

### 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또는 한국을 배우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한국어 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들에게 한국학(Korean Studies) 또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된 까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sup> 이 중 전자는 주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로 경제적, 정

---

\* 이 논문은 2004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년도 연구보고  
대회의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조언을 주셨던 상명대학교 교  
육대학원의 조항록 교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치적, 실용적 목적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나 대학 입시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려는 목적 등의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지난 1년 동안 참여, 관찰하고 있는 미주권의 한국어교육은 이상의 두 가지 목적이나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동부의 뉴욕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부로, 한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어서 40만 명이 넘는 재외 동포와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200여 개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9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중요 대학인 럿커스(Rutgers), 콜롬비아(Columbia), 프린스턴(Princeton), 코넬(Cornell), 뉴욕(NYU),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 등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 과정, 학부 또는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연구자는 그동안 주로 동부 지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참여·관찰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연구를 시작한 순서에 따라 그 내용과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이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실재를 조사·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학 차원에서 한국 문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미

1)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서 2003년에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재외 동포 수는 173개국에 607만 명 정도로, 미주 지역은 215만 명으로 최대 밀집 지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재외 동포는 중국, 유대인,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이런 인적 자원은 한국의 경제, 정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국 문학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들이나 현재 한국 문학을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가능성과 다양성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연구자는 방문 교수로 와 있는 렛커스 대학의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의 교수-학습을 참여 관찰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고급 과정 이수자나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강하는 한국 문학 관련 강의를 참관하여, 한국 문학 교수와 학습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런 조사 연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그동안 연구자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한국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즉 완벽한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때 문학 작품은 언어 능력 또는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제반 능력(의사 소통 능력, 문화 능력, 문학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의 제재가 될 수 있으며, 교수-학습의 목적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 연구도 중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연구가 필요하였다.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상황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한국어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했다. 아울러 현장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라는 수준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같은 연구 방향이나 내용에서 선행(先行)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문학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현황과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는 연구이다.<sup>2)</sup> 이를 위해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처럼, 미주 지역 대학의 한국어교육 프로

2) 연구자의 그동안 연구는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한국어 교육 현황이나 현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 이론을 제시하고, 끝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어교육 연구는 그 순서를 역(逆)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현장이나 현실이나 한국어나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에 기초한 이론적인 바탕 없이 무성한 현장 보고와 같은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이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램을 조사하고 한국 문학교육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현황과 문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 한국 문학 교수-학습 현장을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전망과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up>3)</sup>

실제로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의 한국학 전공의 수준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의 각기 다른 목적에 맞는 교수-학습 이론을 연구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실제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실용적인 언어상황이나 어휘, 문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보다 높은 단계인 문화나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수준의 문화나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지난 2003년 2월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sup>4)</sup>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참여·관찰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럿커스 대학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 미국 내 30개 대학<sup>5)</sup>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

3)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교육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의 현장에 기초하여 한국어교육 이론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4) 이 예비 조사는 재외 동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국학교, 대학교, 일반 사설 기관 등의 한국어교육 실태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진동섭·윤여탁·모경환(2003)을 참조할 수 있다.

5)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조사 대상 대학은 미국한국어교사협회(AATK)의 홈페이지

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학과와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 학과, 한국학 관련 교수가 있는 학과의 강좌나 개설 과목, 강의 담당 요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 문학 관련 강좌나 강의 계획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조사 자료를 보충하는 면담 조사와 참여 관찰을 통하여 실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계적 차원에서 처리하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면담 조사는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통계 차원 처리되어 산출된 평균적인 숫자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특성들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매 학기에 개설되는 한국 문화나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이 일정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인적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교수 요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더구나 전임 교수나 전임 강사인지 시간 강사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6)</sup>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미주 지역 한국어 프로그램의 대체적인 특성은 이들 프로그램 운영 형태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주전공(Major)이든 부전공(Minor)이든 전공 영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이나 대학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한국어나 한국 문학 강좌를 전공하는 학습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

(<http://www.aatk.org/colleges.html>)에 올려져 있는 65개 대학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몇몇 대학(CUNY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명문 대학과 한국 문학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6)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 요원의 신분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나, 통계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를 산출하여 기록하였다.

물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교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의 대학과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처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대학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다. 공통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주전공으로 운영되는 중국학(Chinese Studies)이나 일본학(Japanese Studies), 아시아학(Asian Studie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었으며,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연구자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대학의 선정은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규모, 수준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연구자가 협조를 구하거나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는 동부 지역의 럿커스, 콜롬비아, 프린스턴 대학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3-2004학년도 봄 학기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 수업이 안정된 시점을 선택했다.

설문 조사 대상은 한국어 중급 학습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중급 수강자는 럿커스 대학에서 중급반(Intermediate Korean) 학습자 33명이었으며, 한국어 고급 수강자는 럿커스 대학에서 고급반(Advanced Korean) 학습자 12명과 고급 한국어 강독(Advanced Readings in Korean) 학습자 14명, 프린스턴 대학에서 고급반 5명, 콜롬비아 대학에서 고급반(Fourth Year Korean, Modern Korean: 5th Year) 7명으로 총 38명, 한국 문학 학습자는 럿커스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독(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학습자 22명으로, 총 93명이었다.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그 경우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선택한 명분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

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는 10개의 객관식 문항과 학습자들이 알거나 기억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을 주관식 1개 문항으로 총 11개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강좌 수강자와 한국 문학 강좌 수강자의 설문 문항을 일부 조정하여 제시하였지만,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 내용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설문지에 제대로 응답하기 어려운 중급 한국어 강좌 수강자를 위해서는, 한국어 강좌 고급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제작했던 설문지를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강의 담당 교수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설문지 상호 검토하였으며, 주로 강의 담당 교수가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강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학습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솔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설문지는 100% 회수되었다.

참고로 담당 교수에게 부탁하여 학습자들의 국적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 학습자 모두가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이었다. 이 두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보다는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언어(First language spoken at home in order of frequency)에 따라 몇 가지 문항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변별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보충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대학을 선정한 기준과 고려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 과정과 주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고급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콜롬비아 대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 학부 과정 운영, 강좌 담당 전임 요원 확보<sup>7)</sup> 및 수강 학생 구성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미국에서 한국어 학과가 당면한 현실을 총체적(긍정적, 부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프린스턴 대학: 언어(Language) 프로그램만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고급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 속하는 대학이지만, 대학원이나 학부에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콜롬비아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언어 프로그램만 개설된 학과 나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이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럿커스 대학: 부전공 과정이 개설된 학과이지만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강좌의 수나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많았다. 즉 한국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한국 문학 학습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다른 대학에 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 비율이 높았다(9% 정도).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도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많았기 때문에 통계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립 대학이라는 점도 앞의 두 대학과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연구자는 한국어 문학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7) 대체로 전임 요원에 의하여 한국학이나 한국어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학과이지만, 아직은 문학 담당 전임이 없어서 한국에서 초빙된 한국 문학 전공 교수(2003-2004학년도는 동국대 황중연)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4-2005학년도부터 새로 부임하는 전임 교수가 문학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문학 강좌에 대한 참여 관찰과 한국 문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003-2004학년도 럿커스 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봄 학기 강좌에는 ‘한국 문학 강독(Readings in Korean Literature)’과 ‘한국 문학 번역(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I’라는 한국 문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 및 적용 연구는, 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한국 문학 강독’에서 담당 교수의 양해와 학습자들의 협조를 얻어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문학 교수-학습에 대한 참여 관찰은 봄 학기를 시작한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중간고사 직전까지 반 학기 동안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되도록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강의에 참여하여 관찰하면서 강의 진행이나 특이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몇몇 강의는 보이스 펜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 강좌는 주로 한국 현대 시사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시인들의 시 작품을 읽고 강독하거나 학습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는 22명으로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이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이 같은 한국어 문학 수업에 대한 참여 관찰에 이어, 연구자는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시인과 작품 중에서 한 시간을 맡아서, 학습자들에게 부과된 과제에 대한 발표 이후에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현장 적용은 2004년 4월 13일 백석(白石)의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강의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 강의와 강의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소감이나 참관자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강의안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특히 한국 문학교육의 프로그램 현황 조사,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한국 문학 교육 현장 참관 등의 실재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 II.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개관

### 1. 재외 동포 사회와 교육

100년을 넘는 미주 이민사의 역사만큼이나 미주 지역의 재외 동포의 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일시 체류를 하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 유학이나 조기 유학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땅을 선택한 한국인, 낯선 나라에 입양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정착한 미국인 등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역시 그들의 과거 역사만큼이나 다양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주 지역을 이민지로 선택하였던 재외 동포 1세대는 어느 정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 2, 3세는 대부분 미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외 동포 2, 3세는 미국 내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인 미국 시민 교육을 받고 미국 시민으로 살고자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거나 살 수 밖에 없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주말에는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이런 추세는 1992년 LA 폭동이나 1995년 SAT2에 한국어가 채택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에는 수준 높은 한국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학교는 주로 교회(敎會)의 부설기관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공공 기관이나 사설 영리 기관에서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국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내 한국 교회는 공동체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재원들은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 즉 미국인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한국인으로 성공하는 삶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도 성공한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거주 지역의 선택도 자녀 교육이 편리한 특정 지역에 몰려 살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기관이나 지역 교회 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들 자녀의 일상 생활은 물론 학교 생활도 귀국 후 한국 교육으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재원들의 자녀들은 미국 내 정규 학교에서는 미국을 배우면서 세계 시민 교육 또는 국제 이해 교육 차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귀가 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이나 국어 등 한국의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실정이다. 이 점은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우리한국학교(1992년 주정부에 비영리 학교 법인으로 등록)’의 교육 과정 운영의 특수성이나 주재원들의 집단 거주 지역(뉴욕 부근의 경우 뉴저지의 Fort Lee나 Closter)에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보습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조기 유학생이나 조기 유학을 위한 이민이 증가하면서, 조기 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나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국계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재외 동포나 한시적 체류자인 주재원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유학을 선택한 집단으

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교육적 당면 과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른 집단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태이며 미국 내 한인 주류 사회에 동화되거나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미국 입양아들이 있다.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양아 단체가 결성되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 학교나 해마다 개최되는 여름 학교 등을 통하여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등의 뿌리 찾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이나 미국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재외 동포 관련 사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다.

미주 지역에서 재외 동포나 한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는 미국의 정규 학교 외에 주말 한국 학교<sup>8)</sup>가 있다.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국학교는 교회 부설, 개인 설립 등과 같이 사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로서의 한국 학교는 반 사립 반 공립의 형태로 일정 정도 한국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미주 지역의 주말 한국 학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동포 교육이나 본국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육이라는 거시적인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 미주 지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교육 차원의 보습 학원이나 사설 입시 학원들이 많이 있다. 이 같은 사설 학원의 교육 목적은 미국 정규 교육을 위한 보충 과정과 한국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언어’, ‘회화’, ‘글쓰기’, ‘한

8) LA에 월서 초등학교라는 주말 한국 학교와는 다른 재외 동포가 설립한 전일제 사립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198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1985년 개교하였으며,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어', 'SAT', '컴퓨터' 등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논술', '수학', '미술', '음악' 등이다. 교사의 경우 영어 관련 과목은 미국인 현직 교사나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 기타 과목의 경우에는 재미 동포나 주재원 가족, 유학 온 대학원생이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교회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 2. 한국어 학습자

200만이 넘는 재외 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주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교수나 학습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몇몇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나 연구소에서 한국인 교수와 미국인 학습자라는 역할 분담 아래 시작되었다. 주로 한국어나 한국학, 한국 문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提高),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북한 문제의 대두(擡頭), 미국 내 동포 사회의 역량 증대 등과 맞물려서, 최근에는 전 미주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나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보다는 재미 동포들이 이 분야의 교수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 예로 연구자가 조사 관찰하고 있는 럿커스 대학의 경우, 한국계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9% 정도로 이들은 여러 캠퍼스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sup>9)</sup> 또한 한국계 재외

9) 럿커스 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부전공 프로그램(Minor Program)으로 개설되는 한국어 과정에는 매년 1~2명 정도가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다.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주립 대학이라는 조건은 주변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매 학기 초급 한국어부터 한국 문화나 문학 관련 과목까지 10개 정도를 개설하며, 한 학기에 약 300여 명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잠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한국어가 필요해서 한국어 학습을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적은 것 역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이 처한 현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여건이 좋은 렉커스 대학의 경우 2003-2004학년도 순수 외국인 학습자의 수는 초급 한국어 1반(25~30명), 중급 한국어 2명(입양아 1명 포함), 고급 한국어 1명이다.<sup>10)</sup> 이 같은 외국인 학습자 기피 현상의 이유는 아마 한국어가 미국인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외국어 중의 하나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떻든지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재외 동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 소망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선택하는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SAT2에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재외 동포 2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매년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도 40%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SAT2의 한국어 시험 점수는 2001년의 경우 800점 만점에 평균 746점으로 중국어(748점)와 같이 다른 외국어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손성옥, 2000, 2002).

10) 이 같은 사실은 유명미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2004년 4월 3일)에서 확인되었다.

한국계 학생들이 SAT2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손쉽게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어나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현상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SAT2 한국어 시험이나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강좌 수강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1)</sup> 그래서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거의 없고, 우리말과 어순 구조가 같은 언어권의 일본인 학생 정도만이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로 남게 되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언어권이나 인종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한국계 학생들 역시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도 비 한국계 학습자(Non-heritage Language Learner)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성장과 획일화 현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의 역량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나 히스패닉(Hispanic)이나 흑인(African American)들에게 한국어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나 한국학, 한국 문학을 배우려는 학습자의 저변(低邊)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저변 확대나 학습자의 질적 전환을 위해

11) 예전 통계 자료지만, 2001년도 SAT2 한국어 응시자의 80%가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언어권이나 인종 분포에 대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일 것이다.



서는, 한류(韓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계 비영리 사회 단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미주 한국어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미주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실재가 최고(最古, 最高)라는 생각이나 한국어 학습자의 수에서 양적으로 최대(最大)라는 생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은 이 자부심이라는 우물 안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어교육계가 커다란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 및 교수법, 교육 과정, 학습자 등에 관한 모든 측면(질적, 양적, 다양성 등)에서 말이다.

### 3. 한국어 교육과정

그동안 연구자는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장을 조사, 관찰하고 여기에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든지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측면에서 백화점에 비유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한국학이라는 진열대를 마련하여,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소개한 개척 정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곳곳하게 한국어를 지켜온 수고스러움.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을 학문의 자리로堂堂하게 끌어올린 공로. 더구나 남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꺼이 맡아 감당하고 있는 봉사 정신 등등에 대해서…….

적어도 연구자가 그동안 만난,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노동이고 이 일에 종사하는 것 역시 직업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 교

사나 교수에게서는 보기 힘든 사명감 또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다. 그 이유는 미주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양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의 교육 제도 속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국어교육보다 그 역사도 오래 되었고 지내온 이력(履歷)도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의 우산 속에서, 단지 동아시아의 언어라는 이유로 공생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한국어교육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어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질적으로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공통과 같은 위용을 자랑하는 중국어와 일본어라는 두 언어의 틈새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된 중국,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과 중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미국, 그렇기에 동아시아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인원 구성은 중국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대의 찬란했던 중국 문화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동경심과 서양 중심주의에 대한 반향(反響)에서 제기되었던 동양학(Orientalism)의 열기는 미주 지역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된 동아시아학과의 중심에 중국학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거나 아직도 전쟁의 와중에 있는 나라쯤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이런 편견은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sup>12)</sup>

더구나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일본과 일본어가 동아시아학과의 또 다른 구성원이다. 미국의 중국학에 대한 필요만큼,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동원하여 미주 지역의 일본어교육이나 일본학 연

12) 참고로 중국계 미국인, 즉 화교는 전 세계 화교 3400만 명의 10.48% 정도가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구에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나 일본학은 교육 과정이나 인적 구성에서 동아시아학과 주류 학문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중국학과는 달리 일본 경제의 세계 진출 또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일본어와 일본학을 육성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재계까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sup>13)</sup>

이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은 미국의 필요도 중국에 비하여 크지 않고, 한국의 지원도 일본에 비하여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미 국방성의 용역을 받아 추진하는 'Korean Flagship Program'(하와이 대학, UCLA)도 미국의 이익이나 안보<sup>14)</sup>를 위해 필요한 중국어의 필요만 하지 못하고, 한국의 국가 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나 기업의 지원은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인식이나 해당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학과에 속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한국어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이 점은 비교적 한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정

13)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국어학회에서 펴낸 『세계의 언어 정책』(태학사,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14) "The National Flagship Language Initiative(NFLI) wa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NSEP to address the urgent and growing need for American students across disciplines who advance to professional levels of competency in language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NFLI pilot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t several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or advanced language training in Arabic, Korean, Mandarin Chinese, and Russian. Each program is designed to train students to the federal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ILR) Level 3/ACTFL Superior level, which is considered to be professional working proficiency in a language." (출처는 아래 사이트 주소 참조)

(<http://www.umich.edu/~iinet/iisite/pdf/NFLI.2004.national.flagship.language.initiative.pdf>)

이 훨씬 좋은 LA나 뉴욕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의 동아시아학과 전공 영역의 교과목 나열이나 교수 요원 확보 현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의 사정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대학의 현황을 비교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언어	전공 영역과 학위 과정	과목수	교수수
UCLA	중국어	Lower Division Course: 21 Upper Division Course: 30 Graduate Course: 32 총 83과목	9	10
	일본어	Lower Division Course: 17 Upper Division Course: 38 Graduate Course: 41 총 96과목	18	10
	한국어	Lower Division Course: 19 Upper Division Course: 37 Graduate Course: 29 총 86과목	15	7
Rutgers	중국어	Undergraduate Major Undergraduate Minor	18	5(20)
	일본어	Undergraduate Major Undergraduate Minor	11	3(9)
	한국어	Undergraduate Minor	8	2(6)
Indiana	중국어	Major in Language and Culture Minor in East Asian Languages Major/Minor East Asian Studies MA, Ph.D in East Asian Language	13	18
	일본어	Major in Language and Culture Minor in East Asian Languages Major/Minor East Asian Studies MA, Ph.D in East Asian Language	18	11
	한국어	Major in Language and Culture Minor in East Asian Languages Major/Minor East Asian Studies	5	3

※ 2004년 봄 기준.

※ 러커스의 괄호 안은 강사 포함, 인디애나 과목 수는 2004년 가을 기준.

위의 표에서 미주 지역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전공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주에서 제일 큰 교포 사회를 배경으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연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UCLA의 경우, 중국어가 전공 과목 수나 개설 과목 수에서 한국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그러나 최근 LA 지역에 급증하는 중국인들의 진출은 조만간 이런 상황마저 역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 지역에서 개설 과목 수나 학생 수에서 가장 규모가 큰 럽커스 대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LA나 뉴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사정은 거의 인디애나 대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은 여건 면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에 비하여 열악하며, 스페인어 등을 비롯하여 서유럽의 언어와는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 거주하는 흑인 인구를 증가하는 4,000만 명<sup>15)</sup>에 이르는 히스패닉들을 배경으로 하여, 스페인어는 전 미주 지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교육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같은 편중 현상은 대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보다 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에서는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 Ⅲ.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

#### 1.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지난 2004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국어 학습자

15) 미국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2억 9,081만 명이고, 이 중 히스패닉계가 3,989만 9천 명, 흑인이 3,874만 9천 명, 아시아계가 1,350만 3천 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주판 『중앙일보』의 2004년 6월 15일자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통계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머물렀나를 묻는 것이지만, 어느 시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거나 어떤 학습자 집단이 한국계 미국인 학습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 문학 학습자의 경우 주로 중학교 이상의 단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렛커스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렛커스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앞의 두 집단의 중간,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집단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렛커스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 중급 학습자들은 주로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한 것에 비하여,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콜롬비아와 프린스턴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초급 단계에서부터 배워서 이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어를 대략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렛커스	콜+프	소계		
5년 이내	29	8	9	17	4	40
6-10년	2	8	2	10	7	19
11-15년	2	5	0	5	7	14
16년 이상	0	5	1	6	4	10

이 통계는 미주 지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배웠는가를 묻는 것으로, 앞의 설문 문항을 보충하는 자료이기도하다. 이 표를 보면, 렛커스의 중급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들은 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음에 비하여,

럿커스의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들에게서는 변별적인 특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럿커스	콜+프	소계		
한국의 정규학교에서	1	16	5	21	19	47
미국의 한국학교에서	9	4	4	8	0	22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12	4	10	14	3	29
가정에서	18	11	6	17	6	41
* 복수 응답이 있음, 무응답: 1명						

이 통계는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학습자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 점은 모든 집단의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현상이 복합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이 설문이 단순 응답을 요구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복수 응답을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럿커스의 고급 학습자들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럿커스 중급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들은 주말 한국학교의 비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운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점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나

16) 연구자는 주말에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한국 학교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초반'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부모님	28	22	8	30	16	74
학교 선생님	0	3	6	9	4	13
친구	4	5	2	7	5	16
기타	태권도 사범, 가족(형, 조부), 드라마 <sup>2</sup> , 비디오, 한국, 5					
* 복수 응답 있음, 무응답: 1, 기타의 5는 중급 학습자 응답.						

이 설문도 단수 응답이고 최선형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복수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을 부모님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보면, 앞의 통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이 응답에는 부모들의 강요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선생님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다만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릿커스의 중급 학습자들은 앞의 설문에서는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답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설문에서는 아무도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자기들을 가르친 학교 선생님을 지목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1시간 이내	11	4	5	9	2	22
2-3시간	14	1	2	3	4	21
4-5시간	2	4	3	7	6	15
6시간 이상	6	17	2	19	10	36

한국어 학습자들의 일상 언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묻은 설문 결과다. 그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릿커스의 중급 학습자,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릿커스의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전자의 집단은 영어권 학습자들이고, 후자의 집단은 한국어권 학습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주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권 학습자뿐만 아니라 영어권 학습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비디오나 영화	22	19	7	26	9	57
인터넷	12	12	5	17	16	45
한국 관련 서적	9	9	1	10	7	26
가족이나 친구	30	22	12	34	9	73
기타	교수님, 학교, 한국어반2, 코믹, 기타2					

\* 복수 응답 가능

이 설문은 한국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자료는 무엇이고,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들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을 개발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물론 이 경우도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상 생활 속에서 한국어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책보다는 비디오나 영화,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습 보조 자료 개발에 이 점을 참고하여, 영상 매체나 신매체(New Medi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터넷보다는 영화나 비디오를 선호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터넷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권 학습자들뿐 아니라 영어권 학습자들을 고려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있다	16	24	11	35	×	51
없다	17	1	1	2	×	19
다른 곳에서 배우거나 접한 적이 있다	집에서, 풍물제					

\* 한국어반만 해당하는 문항

이 설문은 한국어 학습 단계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대부분의 고급 학습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점은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문화 또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도 부합하는 현상이다.

이에 비하여 중급 학습자들의 절반은 한국 문학을 이전 단계에서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 초급 교재나 여기서 활용하는 학습 보조 자료가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일상 상황이나 대화, 생활문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급 이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문학 번역 작품이나 간략하게나마 번역된 한국 문학 소개 또는 한국 문학사를 보조 자료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sup>17)</sup>

※ 한국 문학 강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한국어 어휘	5
한자어나 한자 표기	17
문학 작품의 비문법적 표현	3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표현	13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	0
* 무응답: 1명	

\* 복수 응답 가능, 한국 문학 수강반만 해당하는 문항

이 설문 조사는 한국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문학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한자어나 한자 표기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

17) 이 같은 교수-학습은 아시아권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표현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한자를 어렵게 느끼거나 시적 표현과 같은 문학적 표현을 어려워하는 현상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sup>18)</sup> 이에 비하여 문화 차이를 호소하는 예는 없었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의 학습자들이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문화권 속에서 성장하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매우 필요하다	4	11	3	14	10	28
어느 정도 필요하다	8	15	6	21	9	38
보통이다	21	0	3	3	2	26
필요하지 않다	0	0	0	0	0	0
* 무응답: 1명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한국 문학 학습자들이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한국 문학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어교육에서 외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한국어교육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중급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18)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나 한자 표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문장이나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려운 것으로 꼽고 있다. 이 점은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읽을 때 영어권에 흔히 쓰는 라틴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던 기억과도 상통한다.

이다 라고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직 중급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가 적었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 교재가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급 이하의 한국어 교재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어나 한국 문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	17	9	26	6	57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	10	6	16	10	49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4	15	8	23	18	45
앞으로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5	6	11	2	25
기타	단어 공부, 한국어과가 자랑스러움, 한국인과의 대화, 2세를 위해, 가족간 의사소통, 읽고/쓰기					

\* 학점 취득과 관련된 사항 제외, 복수 응답 가능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효과를 묻는 설문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이 어떤 목표를 지향(志向)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복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고르게 응답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유사한 설문을 한국어 교사나 한국어교육 연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최선다형으로 물었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결과다(윤여탁, 2002).

이에 비하여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적은 학습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절반이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집단의 학습자들이 다른 집단과는 다른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학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밖에 기타 항목으로 한국어 학습(단어, 대화, 의사 소통, 읽기, 쓰기)과 관련된 목표를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 한국어교육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문학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중급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콜+프	소계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	10	8	4	12	7	29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	24	16	7	23	12	59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	22	12	8	20	11	53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	12	9	6	15	2	29
최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	13	7	5	12	9	34
기타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적인 작품					

\* 복수 응답 가능

이 설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한국 문학 작품의 기준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과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꼽았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학 작품은 쉬우면서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하며, 이런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재나 한국 문학 교재가 구성되어야 함을 암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문학교육)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한국어 의사 소통 교육), ‘최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현실 문화 이해)은 비슷비슷한 정도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이나 대중 문학 작품들을 다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제목을 각각 세 개씩 쓰시오.	
고전 문학	홍길동전(7), 춘향전(7), 심청전(5), 흥부전(4)
현대 소설	소나기(17), 가시고기(6), 상록수(6), 아버지(6)
현대시	진달래꽃(5), 님의 침묵(4)

이 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의 제목을 쓰도록 한 주관식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작품 제목이다.(이 문항에 대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의 설문 조사 결과 해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전 문학 작품이나 현대 문학 작품을 막론하고, 모두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 현대 소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은 「가시고기」나 「아버지」처럼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읽힌 대중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응답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을 들고 있다. 또 표에 제시된 현대 소설과 현대시의 고빈도 목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시보다는 현대 소설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이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고전 시가나 현대시보다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을 선호(選好)하는 경향은 자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과 이야기로 이루어진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은 한국어 교사나 연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sup>19)</sup>.

## 2. 한국어 문학교육과정 현황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미주 지역 30개 대학에서 개설하거나 교육 과정에 나열하고 있는 문학 관련 교과목이나 강좌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미주 지역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조사는 60여 개의 대학 중에서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만한 학교로 추정되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과나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과 교수 요원, 강의 계획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가 이렇게 조사한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거나 강좌의 명칭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학과의 공통 강좌에 부제(副題)를 달아서 한국 문화나 문학 관련 강좌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한국 문학 관련 강좌의 경우 한국어 프로그램에는 나열

19) 이와 관련해서는 윤여탁(2002)의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휘를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 능력에 도움을 준다	66
문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47
한국어 수업의 다양하고 유용한 활용 자료가 된다	68
학생들의 흥미를 끌며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39
... 기타	2

되어 있지만 이를 담당할 강사가 없어 최근 몇 년 동안 개설된 적이 없어 서 조만간 폐강될 처지인 경우도 있다는 사정을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대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조사 내용 중에서 학과의 대체적인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코스 구분과 전체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 문학 관련 과목의 명칭, 교수 및 강사의 수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 표를 바탕으로 하여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과정의 대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 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한국학) 관련 교육과정, 문학 강좌, 교수 요원〉

대학	코스구분	과목 수	문학 관련 과목	교수 강사
BYU	Major MA, PhD	21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Modern Korean Literature Advanced Reading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
Chicago	Minor	16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I	3
Columbia	Major MA, PhD	27	Colloquium on Modern East Asian Texts Comparative Literature - East Asia Korea, Japan and Literary Modernity Seminar: Gender & Writing in China and Korea Modern Korean Literature	7
Cornell	Minor	16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Development of Literary Modernity in Korea	4
Duke	Minor	9	Advanced Korean II(pansori)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4
George Washington U.	Minor	11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I	1
Georgia U.	Language	8		3

대학	코스구분	과목 수	문학 관련 과목	교수 강사
Harvard	Major MA, PhD	30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Pre-Modern Korean Literature Modern Korean Poetry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Modern Korean Fiction Reading and Research	10
Hawaii U.	Major MA, PhD	39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Introduction to Modern Korean Literatur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Korean Verse Korean Narrative Korean Drama Literary Translation of Korea Research Seminar in Korean Literature	15
Indiana U.	Minor	13	Korean Folklore	4
Michigan U.	Major MA, PhD	21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Modernism and Modernity in East Asian Fiction	8
Minnesota U.	Minor	10	Topics in Korean Literature	1
NYU	Major MA, PhD	11*	Literary Korean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Korean Modernism	4
Ohio State U.	Minor	15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Studies in Korean-American Literature Korean Literary Tradition	3
Pennsylvania U.	Minor	12		3
Princeton U.	Language	6		3
Rice U.	Language	9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2
Rutgers U.	Minor	22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Korea in Translations: Modern Literature and Film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I	6
U. at Albany SUNY	Minor	8	Topics in Korean Literature, History and Culture	5
U. at Binghamton SUNY	Minor	12	Korean Literature of 20th Century(in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pro 20th Century)	2

대학	코스구분	과목 수	문학 관련 과목	교수 강사
U. at Buffalo SUNY	Minor	18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I Korean Literature I Korean Literature II	4
U. at Stonybrook SUNY	Minor	15	Korean Literature(in Translation)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1
UC Berkeley	Major	11	Introduction Pre-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ntroduction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Modern Korean Poetry Four Year Readings-Literature	7
UC Irvine	Minor	8	Korean Literature-Advanced Texts	7
UCLA	Major MA, PhD	85 (56)	Reading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 Reading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B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Modern Topics in Korea Cinema Korean Folklore	7
UCSB	Minor	15	Korean Literature and Film	3
UCSD	Minor	10	Advanced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7
USC	Major MA, PhD	21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Readings in Korean Poetry Reading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8
Washington U.	Major MA, PhD	38	Social Science Literature in Korea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Foreign Study: Korean Literature Advanced Reading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dvanced Readings in Traditional Vernacular Korean Literature Many Koreans: 20th Century Literature and Cultural Construction	8
Yale	Language	5	Trauma and Collective Memory in Korean Literature	3
30		543	80	146

\* NYU: 대학원 강좌 미확인

\* 주전공(Major)과 부전공(Minor)은 학과의 공식 표시뿐만 아니라, 학부나 대학원의 존재 여부와 교육 과정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구분하였음.

먼저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은 통일적인 교육과정이나 각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학마다 학습자나 교수자 등의 여러 여건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어를 전공으로 개설하는 학과는 공통적인 몇몇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나열 또는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Language 프로그램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각 대학이나 기관은 이 중에서 자신들의 사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sup>20)</sup>

이 경우에도 각 대학이나 학과의 사정이 교육 과정 운영에 최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가 없거나 강의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런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 문학교육 관련 과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나 한국어학, 한국 문학, 한국 문화 등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때 세부 전공의 종류나 대학원 과정의 유무, 교수 요원 확보 현황, 타 전공과의 관계 등도 부분적으로는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그동안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 한국어교육계에서 연구된 연구 업적이나 각 지역 한국어학과와의 교육 과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 미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과목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은 위의 표

20) 한국어학과와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대안으로 한국어교육의 여건이 좋은 몇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하면, 다른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한국의 국어교육계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3차 자료집(2003)을 참조할 수 있다.

로 확인되는 80개 정도의 각 대학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통계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이를 통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과목의 성격	과목수
한국 문학 입문(Introduction)	5
한국 문학 강독(Readings)	18
한국 문학 번역(Translation)	22
한국 문학 장르(Genre, 시나 소설 등)	11
한국 문학사(History)	10
한국학 복합 강의(언어, 문화, 정치 등)	5
동아시아 학과 합동 강의	5
세미나(Seminar)	4

위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이 ‘한국 문학 강독’이나 ‘한국 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한국 문학을 소개하거나 독서의 수준에서 한국 문학이 교수-학습됨으로써 한국학 차원에서의 한국 문학만 있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한국 문학은 없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더구나 한국어학과를 졸업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 교육(pedagogy)의 수강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미주 지역 대학에서 한국어가 처한 어려운 사정도 있고, 미주 지역 대학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자만심, 낙후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21) 이런 현상은 날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 지역 한국어교육계에서 가장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교육이야말로 한국학이나 한국 연구의 기본이자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학으로서의 문학이나 어학을 고집하는 극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의 부족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연구자도 한국어교육에 어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이 여러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이다. 또한 한국 어학이나 한국 문학이나 이와 관련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보다는 영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들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문학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하여 한국어 문학교육과정의 편향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 한국어 교육 과정 중에서 문학 관련 교과는 교과목 개발에 실패하고 있다.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있어서 비교적 틀을 갖추고 있는 대학의 한국어학과도 평균 5과목(9개 대학에 44개 교과) 정도의 한국 문학 교과목을 교육 과정에 나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한국 문학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개설 교과목 실정은 이보다 더 참담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에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런 현상의 원인은 교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수강하는 학생이나 강의를 담당할 교수가 없다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관련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입문이나 번역, 강독과 같은 기본적인 강좌만이라도 적극 개설하고, 이를 담당할 교수 요원을 양성하거나 전임 교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학계가 나서서 이 분야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교사들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연구자가 살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이 중에서 한국 문학교육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대학이나 학과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살폈기 때문이며, 한국어교육 가장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학습자, 교수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학습(대부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 능력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살필 수도 없었고 고려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 3.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현장 연구

#### 1) 한국 문학교육 현장 참여 관찰

연구자는 지난 2003년 9월 미국에 와서 동부 지역에 체류하면서, 이 지역의 한국어교육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04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 연구를 위해서 2003-2004년 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고자 하는 강좌의 담당 교수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담당 교수와 협의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된 두 번째 주부터 관찰자로서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강의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참여 관찰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2003-2004학년도 봄 학기 강좌인 ‘한국 문학 강독’은 아시아언어문화학과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이번 학기에는 주로 한국의 현대 시인(최남선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인)들의 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일찍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정규 학교를 다녔으며, UCLA에서 한국 문학(현대시)으로 문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002-2003학년도부터 럿커스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독’과 ‘한국 문학 번역’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80분간(3학점 3시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처음 참여 관찰을 시작한 주에는 수강자는 25명 정도였는데, 이후 일부 수강자들이 수강 취소를 하여 최종적으로는 22명의 학습자가 이 강좌의 수강자로 남게 되었다. 수강 취소 사유는 주로 한국어 능력에서 강의를 원만하게 수강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강의의 대부분이 한국어(때로는 영어도 사용하지만)로 진행되고, 한국어로 된 한국 문학 작품을 읽기 때문이었다. 학습자들의 성비(性比)는 여학생 15명, 남학생 7명으로 모두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이 6명,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1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미국으로 온 학생이 15명이었다. 시간이나 요일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7~19명 정도가 강의에 출석하였다.

수업의 진행은 학습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많았고, 부분적으로 교수의 설명과 보충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교수는 토론의 진행자이자 참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처음 두 번째 주까지는 학생들과 같이 시를 읽고, 교수가 읽은 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학습자들이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시인을 선택하여 조사한 바를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전체 학습자들이 조를 편성하여 몇 가지 관점(목소리, 음질, 어휘)에서 시를 읽고 토론한 다음에 한 학습자가 대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담당 교수와 같이 이 관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학습 환경인 교실은 칠판과 교탁 외에 VTR이 갖추어져 있는 평범한 강의실이었다. 학습자들의 책상인 큰 테이블 세 개가 교탁 앞에 놓여 있었으며, 이 주위에 의자를 놓고 둘러앉게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습

자들이 강의실에 들어온 차례대로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 개의 조로 편성되어 시간마다 토론조를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체로 시간마다 조편성의 구성이 달라졌다. 다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몇몇 학생들이 항상 같이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었지만, 조편성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연구자는 전체 학습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수업 진행을 관찰하였으며,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담당 교수의 보충 설명 부탁을 받고 두 번 정도 수업에 관여하였다.)

강의 계획서는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도 담당교수로부터 전자 메일로 받아 숙지하고 있었다. 강의 계획서의 내용<sup>22)</sup>은 개설학과와 담당 교수에 대한 안내, 강의 소개, 교재, 평가 방법 및 주간 강의 내용 등이었다. 교재는 담당 교수가 발췌한 시 작품 파일을 학습자들의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 인쇄한 복사물이었으며, 일부 시 작품은 강의 시간에 배포되기도 했다.

참여 관찰한 강의 내용 중에서, 김소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인상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달래꽃」을 읽고 학습자들 사이에 벌어진 ‘목소리(시적 화자)’에 대한 토론을 들 수 있다. 이 시의 화자에 대해서 한국의 교과서에는 여성 화자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한국의 문학교육 학습자들은 대부분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주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은 여자라면 애인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점이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강경한 어조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시의 화자가 남자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의 일부 학생은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 「진달래꽃」을 대중 가요로 불러 이 시를 대중화시키는 역할

22) 강좌명은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574:411)》으로서, 그 상세한 강의 계획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을 한 ‘마야(Maya)’라는 가수의 노래를 소개하기도 했으며, 「초혼」을 감상 하면서 한국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초혼제를 비디오로 보여주어 학습자들이 이 작품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먼 후일」<sup>23)</sup>을 강의할 때 학습자들에게 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번역하여 전달 하라는 연습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번역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문제들(forget과 miss 등 어휘, 리듬, 의미 전달, 행이나 연의 길이)에 대하여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어교육에서 번역이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같은 교수-학습 방법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반 학기 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교수-학습 현장을 관찰하면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방향이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수준의 문학교육은 뉴욕이나 LA와 같이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제한점<sup>24)</sup>이 있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국 문학교육 방법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궁극적으로는 유능한 한국어 학습자는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생각하면, 미주의 다른 지역 한국 문학교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 2) 한국 문학 교수-학습의 내용

이 연구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을 참여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구자가 한국 문학 관련 강의를 전담하지 않았던 관계

23) 연구자도 「먼 후일」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하여 이미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의의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윤여탁(2002) 참조.

24) 담당 교수는 연구자에게 이와 같은 강좌의 특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였다.

로 전체 강좌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담당 교수의 협조를 얻어 특강 방식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교수-학습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교수-학습 지도안은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제한 속에서 적용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연구자는 학기초에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자가 강의할 시인을 정하고, 이 시간에 논의할 시 작품의 제재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 먼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담당 교수와 논의하였는데, 그 하나는 이 강좌의 마지막 수업에 하는 방법과 한국어나 한국 문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수업에 하는 방법이었다. 전자의 경우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15주차 운동주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12주차 백석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구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강의에서 논의할 시 작품을 선정하였다. 먼저 담당 교수는 백석의 시 중에서 「고방(庫房)」, 「가즈랑집」, 「고야(古夜)」, 「모닥불」, 「오리 망아지 토끼」를 선정하였고(2004년 4월 2일), 연구자가 여기에 「여승(女僧)」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분량과 교수-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강의 시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시 작품으로 「가즈랑집」과 「모닥불」, 「여승」을 선정하였다. 앞의 두 작품은 사투리가 많이 사용된 시이고, 뒤의 작품은 백석 시의 또 다른 경향인 서술시(이야기 시)로, 백석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아울러 교수-학습할 시 작품의 배열은 「가즈랑집」, 「모닥불」, 「여승」의 순서로 했으며, 각각의 작품에 가능한 학습 활동을 배치하도록 노력했다. 또 이 작품들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라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 교수자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난이도(難易度)

에 따라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을 순차적(順次的),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작품의 길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모닥불」을 중간에 배치하여, 「가즈랑집」을 거쳐 「여승」으로 넘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목표 중에서 ‘문화교육’, ‘문법교육’, ‘어휘교육’, ‘의사 소통 능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선정된 시 작품을 검토하여 ‘사투리와 한국 언어 문화’, ‘한국어 어휘 학습’, ‘한국어 조사(助詞) 활용’, ‘다시 쓰기 또는 말하기 활동’이라는 네 가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 같은 활동은 문학 작품 교육을 통해서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을 같이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지향(윤여탁, 2003)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교수-학습 내용을 정했지만, 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사투리가 많이 쓰인 백석의 시가 한국인 학습자나 독자에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고, 이상의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조금 어렵고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연구자에게 맡겨진 짧은 시간 내에서 이 작품들을 활용하여 가능한 학습 목표를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 또 실제 강의에서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이 같은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시 쓰기 / 말하기 활동’은 과제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틀(학생 발표와 토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한국 문학 교수-학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

고자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기초로 한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을 완성하였다. 한국 문학 교수-학습 현장 적용의 차원에서 실시한 이 특강의 제목은 ‘백석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구안한 내용의 대강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574411) 2004년 4월 13일(화) <b>“백석(白石)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b> 윤여탁(서울대학교, Rutgers University)	
강의 내용 및 진행 순서	시간
강의 도입	3분
학습자의 조사 및 이해 감상 발표	10분
백석에 대해서: 보충 강의, 한국 문학의 이해	10분
<input type="checkbox"/> 서정시와 사투리: 어휘교육, 문화교육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가즈랑집」(교수자 중심) . 사투리와 어휘 학습 . 한국 문학과 한국 언어 문화	20분
<input type="checkbox"/> 서정시의 표현: 조사(助詞) 활용, 넘여가기 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모닥불」(학습자 중심) . 특수 조사 “도” . 함축된 내용 상상하기	5분
<input type="checkbox"/> 서정시와 이야기: 의사 소통 능력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여승」(학습자 중심) . 사건 전개에 따른 시의 순서 . 다시 쓰기 / 말하기 활동	25분
학습 내용 정리 및 의의	5분
강의 마무리	2분

### 3)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의 현장 적용 과정과 결과

현장 적용 과정: 현장 적용을 하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가서 담당 교수와 교수-학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강의에 참관을 위해 온 유명미 교수와 프린스턴 한국학교의 이종숙 교장 선생님 등 참관자들과 함께 ‘백석 특강’이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강의실에 들어갔다. 반 학기 동안 참관 수업을 하면서 낮이 익은 학습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담당 교수의 강의 안내와 다음 시간 과제 안내가 있었으며 미리 발표 수업을 준비한 학생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강의 수강 학생은 총 22명 중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세 개의 책상에 나누어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그러나 의사 전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남학생 발표자의 발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백석에 대한 소개와 백석의 대표작인 「여승」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내용을 읽는 것이었다. 이어 연구자가 강의안을 배포한 다음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즈랑집」과 「모닥불」, 「여승」을 해석하는 수준이었으며 사투리가 많이 사용된 시였던 관계로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은 세 편의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 즉 사투리나 모국어의 의미, 고향이나 유년 체험의 의미, 무당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의미(「가즈랑집」), 모닥불이 보여주는 유대 의식의 표현, 특수 조사 ‘도’(「모닥불」), 여인의 수난과 민족사의 수난을 표현한 리얼리즘 시, 「여승」이라는 시에 나타난 이야기의 순서, 서술사에서 이야기의 효과, ‘같이’의 여러 가지 쓰임과 차이(「여승」) 등에 대해서 설명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진행 과정에서는 이전 수업 시간에 학습하였던 시나 설명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강의 시작 전에 학생이 발표했던

내용과 연관지어 시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끝으로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참여 관찰 수업에 대한 감회와 담당 교수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80분 동안 학습자들에게 낯선 사투리나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시 세 편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여승」을 장르 전환을 하는 ‘다시 쓰기 / 말하기 활동’은 대체적인 취지만 설명하고, 학습자들의 실제 학습 활동으로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현장 적용 결과: 이번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의 차원에서 실시한 현장 적용 교수-학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패한 수업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교수-학습안에서 다루어야 할 제재가 너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학습 목표 역시 이상적인 환경<sup>25)</sup>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너무 많이 설정했기 때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세 작품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각 작품마다 두 개 이상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것도 무리였다.

다음으로 실패한 이유는 교수-학습 내용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시인의 작품이었음을 들 수 있다.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 학습을 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었지만,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낯선 백석이라는 시인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다. 더구나 백석의 시가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의 양을 재조정하여야 했으나, 이미 학습자들에게 많은 시 작품들이 제공되었던 관계로 최소한도로 조정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끝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교수-학습 방향에 잘

25)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교수-학습안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가능한 방안들로, 학습자의 수준, 한국어교육의 단계나 학습할 문학 작품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못이 있었다.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점과 이 강좌가 ‘한국 문학 강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 작품을 읽고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더구나 연구자가 원래 의도했던 학습자 중심의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활동을 구안한 것도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안: 이와 같은 현장 적용의 교훈을 거울삼아 그 대안<sup>26)</sup>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문학 교수-학습에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제재를 선정하고, 학습 시간에 다루는 작품의 수준이나 양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 예로 교수-학습의 제재로 현대 문학 작품이나 대중 문학 작품을 선정한다면, 학습자들은 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 제재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법 학습이나, 어휘 학습, 문학 감상, 의사 소통 능력 함양 등의 추가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단계나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다시 읽고 싶은 문학 작품이라는 감동적인 체험으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구안하고 배치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심화시키고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이나 자국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수-학습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

26) 여기 제시된 대안들은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고, 현장 적용을 했던 ‘한국 문학 강독’이라는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과목에는 또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고, 이를 해당하는 교과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적절한 학습의 수준과 목표, 내용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학습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 학습자들은 항상 한국어나 한국 문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교수-학습한 내용을 자신들의 의미 있는 체험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반복 학습과 끊임없는 상기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학습 시간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을 반복하거나 예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는 활동을 함으로써, 교수-학습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최대한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 IV. 한국 문학교육의 정책적 대안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가 살펴 본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적 차원에서 그 진흥책을 추진할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한국 문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학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한국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육성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다.

이 대안들은 연구자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로서 조사하고 관찰한 현황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학교나 학과의 상황에 따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한국 문학교육과정

연구자는 앞에서 한국 문학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표준 교육과정 문제, 한국 문학 강독이나 번역에 편중된 문학 교과목, 한국 문학 관련 개설 교과목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논의할 문학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문제는 이들 문제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한 기본 철학은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실용 학문이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발할 경우 곧바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어교육의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문학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한국 문학 교과목의 개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와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한국어교육이나 한국 문학교육과 관련된 표준 교육과정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중요 대학의 학과에서 개설 교과목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교육 과정을 혁신적으로 구안하여 이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대학의 학과는 중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개발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을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학습자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 문화(대중 가요 등)를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주의(Feminism)나 오리엔탈리즘, 신식민주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교육과정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자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향을 참고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어학과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인접 언어 관련 교육과정, 즉 중국어나 일본어 관련 문학교육을 참조할 수 있다. 좀더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학과와 교육과정이나 한국의 국어교육 교육과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미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주 지역 몇몇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경우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충분하고 넘치는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주 지역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원의 유무, 주전공과 부전공, 언어 과정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발 작업의 성공 여부는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모두 흔쾌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부심이나 자존심, 부끄러움을 자랑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법 혁신 등은 하나로 연결되는 끈이거나 고리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런저런 문서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교육 현장의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교수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나 흥미에 부응하는 작은 노력(교과목 제목, 교재의 수정과 보조 교재의 다양화, 새로운 강의 방법 모색)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발과 같은 큰 문제가 아닌 교재나 교수법 개선 정도로도 교육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닫혀 있다. 몇 년 전 한국어교육을 하려는 학습자들이 없었던 시절이나 최근 몇 년 동안처럼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급증한 시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국어 교재가 새롭게 개편된 것처럼, 사람도 많이 달라져야 하고 제도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역시 이와 같은 시장 논리와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하면, 왜 한국 문학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수법 등이 바뀌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 2. 한국 문학 교수 요원

한국 문학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교수 요원의 확보 문제다. 실제로 과목이 있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이 없어서 폐강 내지는 한동안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이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실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수 요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동아시아학과와 중국어나 일본어의 대응 방법이나 전략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학과와 경우도 참고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 한국어학과와 경우, 교수 요원 확보에 있어서 미주 지역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프로그램과 인접한 중국어나 일본어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 요원 확보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기초 학문으로서의 중국학이나 일본학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학적 차원으로서의 중국학이나 일본학 차원에서도 말이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미국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확보하여 보장받는가?)

궁극적으로 대학 자체의 재정으로 한국어 교사나 한국 문학 교사의 확보를 지향하여야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미주 지역의 대학은 특히 그렇다. 미주 지역보다 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역(동남 아시아나 몽고, 독립 국가 연합 등)에 비하여 한국어 교수 요원 확보는 결코 좋은 형편은 아니다. 그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먼저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미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치,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은 편이라는 장점이 단점도 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접 대학에 한국 문학 교사가 있을 경우 이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거리나 시간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한다는 한국적 미덕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사정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정이 허락되는 한국어 교사가 자기 개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

의 경우에도 의사 소통 능력 차원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여, 미주 지역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경우 자신들이 가르치던 과목이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하거나 폐강이 되면서, 많은 교사나 교수들이 자기 개발이나 연수를 통하여 전공을 전환하거나 부전공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수법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들이 있는 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교수자들이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 역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 해마다 미국으로 오는 수십 명의 한국 문학 전공(부분적으로는 영문학 전공) 방문 교수나 박사 후 과정(Post Doc) 연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비자 문제와 강사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중의(衆意)를 모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다만 한국 문학 전공 교수 요원의 경우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초빙이나 방문을 위한 사전(事前) 접촉 과정에서 이 점을 전제로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교수 요원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어교육에 관한 학회나 연수 등은 한국이나 동아시아 각국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대학원이나 학부 과정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학습자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학습자나 연구자들이 유학을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문 연구를 위한 한국어교육(Academic Korean)이나 업무 한국어교육(Business Korean) 등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 해마다 학습자도 교수 요원도 급증하고 있다.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에게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수나 교사보다는 동아시아적 미덕을 겸비한 선생이나 스승으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고려하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 3.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 육성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계는 통합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새로운 화두(話頭)와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이다. 그리고 미국의 주립 대학들은 이미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연구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 지원 등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교육 제도 등의 제약이 있고,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말이다.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의 선정과 육성은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맞추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과 주립 대학 수준의 대학, 동부와 서부, 한국어교육 분야와 한국학 분야 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과나 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



올려 거점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는 동아시아학과와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독립 학과<sup>27)</sup>나 독립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통합이라는 추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선정된 거점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신에,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분야에서 각 대학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요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한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유능한 한국어교육 교수 요원이나 연구자들이 거점 대학에 와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대학의 학과는 이 거점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 교수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거점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 교수법 등을 다른 대학에 도입할 때는 각 대학이나 학과의 사정에 맞추어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과나 한국학과에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하와이 대학과 UCLA는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거점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UC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의 한국학 관련 연구소는 과거 미주의 서부와 동부에서 한국학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육성한다면, 학습자나 교수자 확보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어교

27)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학과나 러시아의 극동대학교의 한국학대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 동남 아시아나 몽고, 중국 등의 일부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추세다.

육이나 한국학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과거 역사나 대학교나 연구소의 지명도 같은 현재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과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나 기관이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세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 과정 항목에서 간단히 언급한 교재 문제, 교수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제기되는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학습 환경이나 교재, 교수 요원 등의 주변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첨언(添言)을 하면, 이제부터 한국어교육학계도 일반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을 제출하자고 재언하고자 한다.

## V. 맺음말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는 거듭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어교육학을 개척해 온 선구자였다는 점과 지금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같은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연구자의 이번 연구는 국외자(局外者)가 본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재였다는 점을 심분 양해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이 연구는 국외자인 연구자가 지난 1년 동안 미주 지역에 체류하면서,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 문학교육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한국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살피고자 했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양(止揚)과 지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했다. 즉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제도와 이 교육 과정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배우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의 기반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조사를 하면서, 한국 문학 교수-학습 현장에 참여하여 한국 문학 교실을 관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을 구안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동안 연구자가 진행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현장 연구로 전환하여, 그 실체를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한국 문학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교수-학습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장 연구를 통하여,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학 교과목 개발과 표준 교육과정의 구비, 문학 교수 요원의 확보 방안,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의 선정 및 육성 등이 그 대안이다. 물론 이 정책적 대안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앞으로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한국어교육학과 정부 차원의 한국어 지원 기관들이 진지하게 검토 연구할 과제다. 연구자 역시 이를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끝으로 연구자가 그동안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을 조사 관찰하는 현장 연구와 이에 대한 현장 적용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에 본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럿커스 대학의 유영미 교수와 앤 최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인디애나 대학의 이효상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김귀숙 선생, 콜롬비아 대학의 이현규 선생과 김진홍 선생에게도……. 또 연구자가 럿커스 대학에 방문 교수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았던, 지금은 UC at Santa Barbara에 있는 이진숙 교수와 예비 조사 단계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 뉴욕 한국교육원의 이용성 원장, 뉴욕 한국문화연구재단의 이선근 이사장, 우리한국학교의 김영만 이사장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문학교육, 요구분석, 교육과정, 현장 연구

---

\* 본 논문은 2004. 12. 18. 투고되었으며, 12. 20. 심사가 시작되어, 12.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 문헌

- 강승혜(2002), 「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연구」,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2002),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권중분(1998),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외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 픽 켈(1999),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국어학회 편(1993),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0),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10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제1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 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2003), 「한국문학사와 한국어 능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김영아(2002), 「한국어 교육과 문화: 다문화 이해의 창」, 박영순 외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외(2000),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민현식 외(2002),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발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 자료집.
-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 박노자(V. Tikhonov)(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 박갑수(1999),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박갑수(2000), 「한국어 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박영순(1989), 「제2언어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6,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박영순 외(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0),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1), 『한국어 교사론』,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한국어교육 평가론』,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차이의 문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손동철(1999), 「읽기 연극을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영어 교수·학습 방법론』, 한국문화사.
- 손성옥(2000), 「SAT2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손성옥(2002),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SAT2 한국어와 응시자들의 사회 언어적 배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어도선(1998), 「영미문학과 영어교육」, 『중등 영어과 부전공 자격 연수』, 서울시 특별시 교원연수원.
- 외교통상부(2003), 『재외동포 현황』, 외교통상부.
- 우한용(1999), 「언어 활동으로서의 문학」,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a),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b), 『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orean Tutor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 윤여탁(200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제문제」, 『한국어문연구』 창간호,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 윤여탁(2002a),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윤여탁(2002b), 「한국어교육에서 현대문학 정전 연구」, 중국 중앙민족대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언어 문학 교양과 교재 편찬 연구』.
- 윤여탁(2003a),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여탁(2003b),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 현대시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중언어학회(1997), 『문화와 한국어 교육 -- 이중언어학회지』 14, 이중언어학회.
- 조창환(1996),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1)」,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진동섭 외(2003), 『재외동포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이중언어학회(2000),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정보 구축을 위한 21세기의 과제』, 제1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한상미(1999),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 -- 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홍혜준(2002), 「문학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 Brunfit, C. and Carter, R.(1986),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Buttjes, D. and Byram, M.(ed)(1991), *Mediating Languages and Cultures: Towards an Intercultural Theor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 Byram, M. and Fleming, M.(ed)(1998),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ram, M.(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 Carter, R. and Long, M. N.(1991), *Teaching Literature*, Longman.
- Collie, J. and Slater, S.(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untas, I. C. and Pinnell, G. S.(2001), *Guiding Readers and Writers*, Heinemann.
- Hills, J.(1986), *Using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Teaching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Macmillan.
- Lafayette, R. C.(ed)(1996), *National Standards: A Catalyst for Reform*, National Textbook Co.
- Lazar, G.(1993),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ey, A. and Duff(1989), A., *The Inward Ear: 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an, C.(1996), "Creative Writing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 Thompson(ed), *The Teaching of Poetry: European Perspectives*, Cassell.
- Phillips, J. K.(ed)(1999), *Foreign Language Standards: Linking Research, Theories, and Practices*, National Textbook Co..
- Tomalin, B. and Stempleski, S.(1994),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1996),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llen Press.

■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 American Case

Yoon, Yeo Tak

This study is written by an observer of KFL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America.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facts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is a desire to devise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literature. First of all, I look at the actual circumstances of current education by researching Korean literature education programs in America.

My goal is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KFL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which is the result of field work and program investigation in America. I suggest some alternative plans: development of literary subjects, preparation of a standard curriculum, collecting Korean literature faculties, and selection of the universities which will be stronghol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upporting them. Of course, these suggestions are my personal opinions. But they are also useful methods that will be u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cademic circ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Need Analysis, Curriculum, Field Work

**부록 1. 럿커스 대학의 아시아언어문화 학과의 ‘한국 문학 강독’ 강좌의 강의계획서**

강좌명: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강좌 번호: 574:411

시즌: Spring 2004

학과: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대학: Rutgers University(College Avenue Campus)

강사: Ann Y. Choi

시간: Tuesdays and Thursdays, 10:20 to 11:20 a.m.

○ 강좌 개요(About the Course)

This is a course on modern Korean poetry. We will be reading various works from the early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starting from the new poetry of Choe Namson to the free verse of Chun Yohan, to Im Hwas narrative poems; we will then continue on to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a modern consciousness apparent throughout the poetry of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and beyond. Our focus will be on the poetry of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as we examine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culture and socie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ssues such as self-consciousness, voice, and tone will be examined in the light of the idea of natio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poetry will be examined vis-a-vis its relationship to other national poetries, as well as it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literature.

○ 교재(Required texts)

Korean-English dictionary of the students choice.

Hard copy of assignments to be xeroxed from the reserve section of Alexander library or printed out from your computer via online reserve; handouts.

○ 평가(Evaluation)

Class Participation (including short writing assignments and presentation): 1/3.  
Come to class prepared to comment on the assigned materials. Starting Week 2, students are asked to turn in daily 1 pg papers responding to the assigned poems.

Midterm: 1/3 The exam will consist of identification questions (40%) and an essay of 3-4 pages.

Final Paper: 1/3 (Due Monday, May 10th, 11:30 a.m.) The final paper will be 6 to 8 pages, on a topic to be assigned or approved by the instructor. Drafts are not required but encouraged to be turned in by the last day of class (Tuesday, May 4th).

○ 일정(Schedule) (subject to slight changes)

Wk 1

화: What is modern Korean poetry? SPRING BREAK

목: 최남선

Wk 2

Wk 9

화: 주요한

화: 김기림

목: 김소월

목: 김광섭

Wk 3

Wk 10

화: 김소월

화: 유치환

목: 이상화

목: 김달진

Wk 4

Wk 11

화: 한용운

화: 이육사

목: 한용운

목: 이상

Wk 5

Wk 12

화: 박팔양

화: 백석

목: 김동환

목: 노천명

Wk 6

Wk 13

화: 정지용

화: 김광균

목: 임화

Wk 7

화: 김영랑

목: NO CLASS

Wk 8

화: NO CLASS

목: 중간고사

목: 서정주

Wk 14

화: 오장환

목: 박목월, 박두진

Wk 15

화: 윤동주

## 부록 2: 한국어 학습자 설문 조사지

### <한국어 고급 수강자용>

이 설문 조사는 미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일  
서울대학교 교수 윤여탁

1. 만 6세 이후 한국에는 어느 정도 체류하였습니까?

- ① 1년 이내 ( )    ② 2-5년 ( )    ③ 6-15년 ( )    ④ 16년 이상 ( )

2. 한국어를 대략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 ① 5년 이내 ( )    ② 6-10년 ( )    ③ 11-15년 ( )    ④ 16년 이상 ( )

3.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 ① 한국의 정규 학교에서 ( )    ② 미국의 한국학교에서 ( )  
③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 )    ④ 가정에서 ( )

4. 나의 한국어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부모님 ( )                      ② 학교 선생님 ( )  
③ 친구 ( )                        ④ 기타 ( )

5.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 )    ② 2-3시간 ( )    ③ 4-5시간 ( )    ④ 6시간 이상 ( )

6.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비디오나 영화 ( )                      ② 인터넷 ( )  
③ 한국 관련 서적 ( )                      ④ 가족이나 친구 ( )  
⑤ 기타 ( )

7.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 )  
③ 다른 곳에서 배우거나 접한 적이 있다 (예: )

8.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

9. 한국어나 한국 문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학점 취득과 관련된 사항 제외,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②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③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  
④ 앞으로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⑤ 기타 ( )

10. 한국어교육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문학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 ( )
- ② 이해하고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 ( )
- ③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 ( )
- ④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 ( )
- ⑤ 최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 ( )
- ⑥ 기타 ( )

11.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제목 각각 세 개씩 쓰시오.

고전 문학:

현대 소설:

현대시:

감사합니다.

<한국어 중급 수강자용>

This survey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within the area of Korean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s purpose is to improve Korean education, so please take a minute and answer the questions.

February 2004

Prof. Yoon Yeo Tak(Seoul National Univ.)

1. How much time have you spent in Korea since you were 6 years old?

- 1) Less than 1 year ( )    2) 2-5 years ( )    3) 6-15 years ( )
- 4) More than 16 years ( )

2. For how many years have you studied Korean?

- 1) Less than 5 years ( )    2) 6-10 years    3) 11-15 years ( )

- 4) More than 16 years ( )
3. Where did you learn Korean?
- 1) regular school in Korea ( )                      2) Korean school in the U.S ( )
- 3) high school or university in the U.S ( )   4) At home ( )
4. Who influenced you the most in your learning of Korean?
- 1) Parents ( )    2) Teachers at school ( )    3) Friends ( )
- 4) Others ( )
5. Approximately how many hours per day do you use Korean either at school or at home?
- 1) Less than 1 hour ( )    2) 2-3 hours ( )    3) 4-5 hours ( )
- 4) More than 6 hours ( )
6. Where can you get help in learning Korean?  
(you can check more than one)
- 1) Video or movie ( )    2) Internet ( )    3) Books about Korea ( )
- 4) Family or friends ( )    5) Others ( )
7. Have you ever learned about Korean literature as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n American high school or university?
- 1) Yes ( )    2) No ( )
- 3) I had a chance to learn about Korean literature in other places  
(example: )
8. Do you think students need to study Korean literature as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1) Definitely ( )
  - 2) To a large extent ( )
  - 3) Somewhat ( )
  - 4) No need ( )
9. What are the advantages to taking the Korean language or Korean literature classes? (you can check more than one)
- 1) Understanding Korea. ( )
  - 2) Strengthening ones pride and identity as Korean. ( )
  - 3) Learning about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culture. ( )
  - 4) Helpful in ones major in college or ones career in life. ( )
  - 5) Others ( )
10. What kind of Korean literature do you think would make Korean learning worthwhile?
- 1) Literary works that are highly acclaimed in the literary history ( )
  - 2) Literary work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and interesting ( )
  - 3) Literary works that help the learner understand the Korean people and culture ( )
  - 4) Literary works that help the learner acquire the Korean language ( )
  - 5) Literary works that have been popular recently in Korea. ( )
  - 6) Others ( )
11. Provide for each category three titles that you know from Korean literature.
- Classical Literature:
  - Modern Fiction:
  - Modern Poetry:

Thank you.

### 부록 3: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 백석(白石)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574:411)

2004년 4월 13일(화요일)

#### “백석(白石)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윤여탁(서울대학교, Rutgers University)

백석(白石: 1912-1995) 본명 기행(夔行).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생. 오산(五山) 중학과 일본 도쿄[東京] 아오야마[青山]학원을 졸업하였다. 1936년 시집 『시습』을 간행하였다.

#### I. 서정시와 사투리

##### □ 자료

---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메 든 도적이 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 밑의

산 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짐승을 쫓는 깽제미 소리가 무서웁게 들려  
오는 집

닭 개 짐승을 못 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촌을 지나는 집

예순이 넘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중갈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  
면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씨레가를 몇 대라도 붙이라고 하며

간밤에 섬돌 아래 승냥이가 왔었다는 이야기  
어느때 산골에선간 꿈이 아이를 본다는 이야기

나는 돌나물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옛말의 구신집에 있는 듯이  
가즈랑집 할머니  
내가 날 때 죽은 누이도 날 때  
무명필에 이름을 써서 백지 달아서 구신간시령의 당즈께에 넣어 대감님께 수  
영을 들였다는 가즈랑집 할머니

언제나 병을 앓을 때면  
신장님 단련이라고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  
구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졌다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울안 살구나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나를 보고  
밀구멍에 털이 몇 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집 할머니다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아 하루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  
도 안 먹은 것도  
가즈랑집에 마을을 가서  
당세 먹은 강아지같이 좋아라고 집오래를 설레다가였다

— 「가즈랑집」

## □ 이해와 감상

- \* 가즈랑집: '가즈랑'은 고개 이름. '가즈랑집'은 할머니의 택호를 뜻함.
- \* 쇠매: 쇠로 된 메. 묵직한 쇠 토막에 구멍을 뚫어 자루를 박음.
- \* 꿩재미: 꿩파리.
- \* 마을(마실)을 가다: 남의 집을 방문하다
- \* 막써레기: 거칠게 썬 엽연초 \* 옛말: 옛날이야기.
- \* 구신간시렁: 걸립(乞粒) 귀신을 모셔놓은 대청 구석의 시렁.
- \* 당쟁개: 당세기. 고리버들이나 대오리를 길고 둥글게 결은 고리짝.
- \* 수영: 수양(收養). 데려다 기른 딸이나 아들.
- \* 아르대즘퍼리: '아래쪽에 있는 진창으로 된 팔'이라는 평안도식 지명.
- \* 제비꼬리 - 회순: 식용 산나물의 이름.
- \* 물구지우람: 물구지(무릇)의 알뿌리를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것.
- \* 둥글레우람: 둥글레의 어린잎을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것.
- \* 광살구: 너무 익어 저절로 떨어지게 된 살구.
- \* 당새: 당수. 곡식가루에 술을 쳐서 미음처럼 쑨 음식.
- \* 집오래: 집의 울 안팎.

이 시에서 사투리는 향토적 색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끈끈한 연대 의식으로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말의 보존이 일제 강점기 민족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시는 이런 사투리를 구사하여, '가즈랑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유년 체험을 표현하고 있다.

1년부터 4년까지는 '가즈랑집'의 유래나 내력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집은 예순이 넘는 아들 없는 무당(단골)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며, 산 너머 마을에서 돼지를 잃은 밤이면 짐승을 쫓는 꿩파리 소리가 무섭게 들려 오는 집으로 마을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세파 속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을 다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때, '가즈랑'이란 단어 역시 이미 고개의 이미지와 함께 극절 많은 삶을 살았던 할머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이 집에서 돌나물 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을 것만 같아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었던 그리운 유년기의 체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할머니는 단지 추억의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가 귀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가즈랑집’은 시적 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고향과 같은 안식처이기도 하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유년기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 고향은 아마 지금은 갈 수 없거나, 예전의 모습이 훼손되어 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시인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유년기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실할 수도 있다.

#### □ 교수-학습 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가즈랑집」
- 사투리와 어휘 학습
- 사투리와 모국어 사용의 의미
-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

## II. 서정시의 표현

#### □ 자료

---

새끼 오리도 현신짜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겔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늬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들도 나그  
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뽕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  
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모닥불」

□ 이해와 감상

- \* 갓신창: 부서진 갓에서 나온, 말총으로 된 질긴 끈의 한 종류 또는 가족으로 만든 신의 창.
- \* 개니빠다: 개의 이빨.
- \* 너울쭉: 널빤지 쪽.
- \* 닭의 짖: 닭의 깃털.
- \* 개터럭: 개의 털.
- \* 재당: 재종(再從). 육촌.
- \* 문장: 한 문장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둔: 새 사둔.
- \* 몽둥발이: 팔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통이만 남은 물건.

백석 시의 또 다른 특징은 시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언어를 과감하게 사용한 점에서 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는 하찮은 것들이 모여 피워내는 따뜻한 모닥불 가에 모인 온갖 사람들, 심지어는 개도 강아지도 모여 불을 쬔다는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모두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모닥불 가에 모인 사람들은 상하 귀천을 가릴 것 없이 하나의 연대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 모닥불을 ‘몽둥발이’로 살았던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로 연결시킴으로써, 역경을 견디면서 살아온 우리네의 정겨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 교수·학습 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모닥불」

- 특수 조사 ‘~도’
- 함축된 내용 상상하기

### Ⅲ. 서정시와 이야기

#### □ 자료

---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올었다

썩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땡도 쉼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여승」

---

#### □ 이해와 감상

\* 금점판: 금광, 금점판.

\* 썩별: 재래종 일별.

\* 머리오리: 머리카락의 가늘고 긴 가닥.

4연 12행의 짧은 이 시는 한 여자의 일생을 압축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1연이 가장 최근의 시점에서 여승을 만난 이야기이고, 2-4연은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과거다.

먼저 2-4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 시에서 여승이 된 여인을 중심으로 한 어느 가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이다.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금광으로 간 다음 소식이 끊겼고, 아내는 옥수수 행상을 하면서 남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남편은 찾지도 못한 채 딸을 돌무덤에 묻었고, 자신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이 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1930년대 농촌의 몰락과 '설편'처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슬픔을 직접 토로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을밤같이 차게'로 어머니의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나 '도라지꽃'으로 비유한 죽은 아이의 형상은 감정의 절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마지막 연에서는 여승이 되던 날, 여인의 슬픔과 회한을 그려내고 있다. 즉 산 땡의 울음이 여인의 울음으로, 여인의 슬픔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머리 오리로 대체 되고 있다.

이 시의 1연에서는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난 '가지취'의 냄새가 나는 여승에게서 속세의 인연이 준 슬픔과 번뇌를 이겨낸 모습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고단했던 세파의 흔적을 여승의 얼굴에서 읽어내고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도 여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 교수-학습 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여승」
- '같이'의 활용과 의미
- 이야기의 전개와 시상의 배치
- 다시 쓰기 / 말하기 활동